

예술인촌은 '삶이 곧 예술'

무안 월선리·담양 창작마을 예술인들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져 예술제·축제 23일 '농촌과 예술 오감 체험 한마당'



지역민과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무안 '월선리 예술촌' 예술인들은 오는 24일 '농촌문화예술제-오감체험 한마당'을 갖는다. 지난 5월 열린 인도 바울예술단 공연 모습.

울초 무안군 '월선리 예술인촌'에 동지를 둔 인도음악가 박양희씨는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마을주민들과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농사일을 마친 어르신들이 마을 도자기 공방을 찾아 시집 간 딸아이 줄 그릇을 빚는 모습이며, 함께 마을 잔치를 벌이는 풍경이 마치 한 가족같았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 정착한 예술인들이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기를 전하고 있다.

'월선리 예술인촌'(http://moon.invil.org)은 지자체 중심이 아닌, 오랜 세월을 지니며 '자연스레' 형성된 마을이다. 촌장을 맡고 있는 도예가 김문호씨가 자리를 잡은 후 화가 김석진·박경희씨 부부, 박인수(한국화), 윤숙정(도예)씨 등이 찾아들었고 현재 20여명의 예술인들이 살고 있다.

봄이면 '복숭아꽃 살구꽃 축제'를 열었던 예술인촌 사람들이 올 가을엔 월선리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이웃한 청계리, 달선리 주민들과 도시인들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마련했다. 월선리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예술마을'

을 표방하고 있는 청계·월선·달선리를 농사와 예술이 하나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까지 진행된다.

'농촌과 예술이 함께하는 오감 체험 한마당'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계남초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풍물패 '소리터'의 길놀이로 축제가 시작되며 도자기 만들기, 양과 염색 등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 분청사기, 염색공예, 짚풀공예작품 전시회와 폼바 각삭이, 동래 학춤, 주민장기 자랑 등이 펼쳐지며 주민들이 직접 빚는 막걸리 등 먹거리도 나온다.

특히 광주 대인동 복덕방 프로젝트 참여 작가들과 부산 동래구 주민들도 함께 동참, 도시와 농촌,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만든다. 토민요, 승광요, 윤도예방, 요선방, 외야골 아프리카, 복사꽃 피인 집, 된장마을, 서당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는 예술촌에서는 상시적으로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서당 및 예절, 사군자 그리기, 전통민장 만들기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을 곳곳에는 또 하나의 예술품이 다. 동네 어귀마다에서 다양한 벽화를

만날 수 있고, 동네 꼬마들이 다니는 청계남초교에는 작가들과 아이들이 함께 완성한 예쁜 벽화가 자리잡고 있다. 전시실을 겸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실 역시 소박하지만 멋스럽다.

지난 5월에는 인도 바울예술단과 국악이 어우러진 흥겨운 난장이 벌여 지기도 했으며 내년 4월 월선리 종합 예술센터가 완공되면 예술인 캠프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20여분 떨어진 담양군 고서면 주산분교에 자리잡은 '담양예술 창작마을'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작업에 한창이다. 현재 이곳에는 놀이매 신명을 비롯해, 한 국가 이화자씨, 서양화가 김병구씨, 염색 연구가 박희연씨, 부채 공예가 김영균씨, 음악인 전영규씨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주산분교에 동지를 둔 예술인들 역시 지역 주민들과 유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예술촌 사람들은 매년 두 차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올 봄에는 단오날 즈음에 행사가 펼쳐졌고 지난 8월에는 동네 사람들과 흥겨운 축제를 열었다.

담양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예술인들의 모임인 담양예술인협회 역시 해마다 담양예술인 한마당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15일부터 3일간 '아름다운 길'로 유명한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서 '공감'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해마다 '가로수 음악회'도 열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원로 시인들이 말하는 '나이 늙과 詩' /

“애환의 파도 줄어드니 평온”

“문인들이 대부분이 요절했어. 생활의 굴곡이 심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 때문이지. 그러다 보니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결국 몸을 해쳐.” (김규동 시인)

시혼(詩魂)을 불태우며 한국 현대시 100년사를 화려하게 수놓은 주역들 중에는 유독 요절한 시인이 많다. 김소월, 이상, 이육사, 윤동주, 김영랑, 이상화, 김수영, 신동엽 시인은 모두 채 오십이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예전에는 시인들의 나이 들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 시인에도 '원로 시인'들이 적지 않다.



황금찬 김광림 박희진 김남조



김종길 성찬경 허만하 문덕수

계간 시인세계 '시인들의 노년...' 특집 원로 10명 시에 대한 진솔한 고백 실어

시 전문 계간지 '시인세계'는 겨울호에서 '시인들의 노년, 노년의 시와 삶'이라는 기획특집을 마련, 최고령 황금찬(90) 시인을 비롯해 김광림(79), 김규동(83), 김남조(81), 김윤성(82), 김종길(82), 문덕수(80), 박희진(77), 성찬경(78), 허만하(76) 시인까지 등단 50년을 넘긴 원로 시인들에게 삶과 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들 시인들은 자연스럽게 찾아든 '여유'를 나이 들어 준 큰 선물로 꼽았다.

김남조 시인은 "체력은 감퇴했지만 애환의 파도가 줄어들어 삶

이 평온해졌다"고 말했고, 문덕수 시인은 "노년이 되니 시와 시론에서 찾아 좀 보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규동 시인은 "누워서 쉬어도 되고 차 한 잔 끊어 가지고 오랫동안 명상에 잠겨도 옆에서 크게 봐주는 일"을, 성찬경 시인은 "완전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노년의 좋은 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딸네 집에 얹혀 있는 데 대한 부담"(김광림)이나 "시력의 저하로 독서의 즐거움을 잃어가는 것"(김윤성)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

반세기 넘게 시인으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에 대해 황금찬 시인은 종군시인 시절 피난민들이 그의 시를 읽고 울며 박수 칠 때가 슬프도록 기뻛다고 회고했으며, 문덕수 시인은 새로운 시를 쓰는 시인을 발견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김규동 시인은 몇 푼 안 되는 원고료 때문에 마음에 없는 글을 여기저기 쓴 일을, 허만하 시인은 시를 평계로 술에 젖었던 젊은 시절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후배 시인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김광림 시인은 "시작(詩作) 행위를 신앙같이 여길 것"을, 허만하 시인은 "세속의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고독을 사귀면서 자기만의 시적 문체를 다지라"고 조언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양원철 연꽃展 ▶ 18~23일 광주 자미갤러리

터키·우즈벡·네팔 7개 예술 단체

광주 문화단체와 문화교류 협약

남도의 정겨운 풍광을 화폭에 담은 서양화가 양원철씨가 18~23일까지 광주 자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양씨는 이번 전시에서 하얀 꽃잎을 피운 연꽃 연작을 선보인다.

해남, 제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눈에 담은 연꽃을 강렬한 푸른빛을 더해 화폭에 담아냈다. 잔잔하게 출렁이는 물결을 따라 연잎이 춤을 추고, 물에 비친 꽃잎이 아른거리는 생동감 있는 잘라를 포착한 작품들이다.

양씨는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4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영·호남 미술교



'홍연지'

류전, 2005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우리랑 독도사랑전 등에 참가했다. 광주시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523-091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터키,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아시아 3개국 7개 예술단체와 문화교류에 나선다.

대동문화재단(회장 조상열)은 17일 "광주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후원으로 아시아 3개국을 돌며 각국의 문화예술단체와 문화교류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교류협약에는 조상열 회장을 비롯해 정광주 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장, 김양군 문화 단체 '열수' 대표, 이상필 천연염색문화상품연합회 회장, 김정 광주예총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터키 이스탄불 국립예술작

업학교(ISMEK), 콘야 시민예술복지재단(SADAV), 우즈베키스탄 국립문화역사박물관, 사마르칸트 외국어 대학, 사마르칸트 예술인협회, 네팔 문화협회, 포카라 히말리 문화협회 등과 상호 교류를 약속했다.

ISMEK은 이슬람 전통의 미술, 무용, 연극, 공연, 영화 등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슬람 최대의 문화예술교육기관이며, 우즈베키스탄 국립문화역사박물관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고고학 박물관이다. 또 네팔 문화협회는 1천여명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CGI 활용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상길)은 광주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진행하는 CGI 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 설명회를 20일 오후 3시 광주 금호빌딩 시그니처에서 갖는다.

이번 프로젝트 모집 분야는 ▲CG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물, 게임 ▲CGI 기술 및 기법 등 CT 기술을 적용한 작품이나 기술 등이며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내년 11월까지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현금 3억원과 현물(제작 공간, 장비 등) 등 모두 13억원의 지원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문의 062-350-246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성민우회,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

광주여성민우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광주 시 동구 금남로 흥사단 교육장에서 제3기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1단계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교육 강사를 양성해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화·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선 ▲여성주의 성교육 ▲몸과 색수업 리터의 이해 ▲젠더 감수성, 성매매, 동성애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관련 법 ▲생애주기별 성교육 접근 등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강의 기법을 전달한다.

교육과정(기본-전문-심화)을 모두 수료한 이들은 광주여성민우회 소속 성교육 강사 자격이 주어진다.

성교육에 관심있고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전화(062-529-0383)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리첸 RITCHEN

리첸 광주점
광주직영전시장 OPEN

11월 18일 오픈

062-350-2222

한지용서

1박2일 79,000원

2박3일 99,000원

한지용서 호텔

주최: 제주(주)뉴 월드호텔공사

협찬: 제주특별자치도